

강임준 군산시장, 태풍피해 최소화 '만전'

인명피해 최소화 24시간 상황관리·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내수침수 방지 위한 배수펌프장·우수저류조가 즉시 가동

군산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 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태풍 대비를 위해 지난 20일 주요 협업부서장이 모여 태풍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21일에는 읍면동장 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이날 오후 강임준 시장은 태풍대비 현장인 경포천 배수갑문을 찾아 태풍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또한 강 시장은 지난 7월 1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내홍동 군산역 교차로 구암동 폐야포로아 인근 도로

침수 지역 소용동 월명공원 인근 내수침수 지역과 옥구읍 연병저수지 등에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군산의 경우 22일 오후부터 23일 오후까지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시는 과거 태풍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또 하천 범람과 침수,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찰활동과 더불어 내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시는 태풍 대비를 위해 지난 20일 주요 협업부서장이 모여 태풍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21일에는 읍면동장 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했다.

이와 관련 태풍 통과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하천 및 해안가 주변 등 위험지역을 사전 통제 조치하며 강풍에 대비해 옥외 광고물 및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 조치를 할 것

을 안내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지역 업체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수의계약 대상자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경기침체와 인구유출로 위기에 처해 있는 관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15년 전북 최초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을 마련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설계변경을 계약부서는 계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 생산품 등의 우선 사용, 수의계약 대상자의 지역 업체 우선 선정, 공사일부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 등이 포함된다.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보호 및 지원지침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7월말 기준) 지역 업체 전체 계약 건수와 수주금액이 각각 2%와 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는 건수와 금액이 각각 2%와 4%가 증가했으며 용역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와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훈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권장하며 관내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농업 관련 단체와 발전방안 간담회 열어

군산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업인 단체장들과 농정발전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장 및 관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관련 민·관 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농정분야 발전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 지역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정발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관련 단체들은 "군산시 농업정책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갈자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추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업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이 기반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 복지증진 및 농촌 자원 발굴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조기 대응태세 돌입

예·경보 시스템 활용한 주민 홍보·기상특보 상황 전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달라" 당부

익산시가 태풍 솔릭 북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1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에서 박철웅 부시장 주재로 13개 협업부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상황관리회의 및 재난 관련부서 대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21

일 오전 4시 현재 강한 중형급 세력으로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39m/s(140km/h)를 유지하며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서 14km/h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고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서북서진해 22일 밤에 제주도 부근을 지나 북상에 23일 새벽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는 비상태세를 확립해 재해 예·경보 시스템 활용한 주민 홍보 및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하고, 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태풍주의보 발효 시에는 비상 1단계 3개 반 93명(시 29명, 읍면동 58명, 유관기관 6명) 및 13개 협업부서, 태풍경보 발효 시에는 1/2 이상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정현을 시장은 "농작물 보호조치,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의 결박

조치,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고정 조치,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 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고정, 하수도 철재 맨홀뚜껑 정상작동여부 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세월교 이용금지, 급경사지 지역 사전 집중점검 및 통제를 당부한다"며 "지역방송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신속히 대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달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지원 사업 시민공청회 열어

군산시는 학생 및 학부모 등과 함께 글로벌디자이너카데미 사업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21일 밝혔다.

9월 1일 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교육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 패널의 의제발언을 한 다음, 그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청 홈페이지 및 서편을 통해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 교육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등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금마 고도지구 간관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국비 5억원·지방비 2억원 등 총 7억원 예산 투입

익산시가 21일 금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백재영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고도지구 간관정비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마 시가지에 위치한 상인과 건물주, 디자인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도지구 간관정비사업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가로 경관개선 사업, 한옥지원 사업 등과 함께 문화재청의 국

비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도지구인 금마면 금마길(농협사거리에서 면사무소 사거리)과 고도길(금마교~익산교 앞)의 약 780m 구간 내 약 100여 개 업소의 노후된 벽면과 간판 등을 정비해 지역별, 업소별 특성을 살리면서 백재영도 고도 이미지와 조화로운 간판을 디자인에 전면 교체한다.

시는 간관정비사업을 위해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디자인

개발을 위한 4차례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지난 8월 2일 고도근로자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주민설명회를 갖게 됐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추진 계획과 디자인 기본(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간관 디자인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상인과 건물주 등에게 디자인과 제작·설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용역에 반영한 뒤 간관 디자인을 확정해 9월 간관정비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익산시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여성가족친화도시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익산시 부시장인 박철웅 위원장을 비롯한 국소단체장과 전문가, 시의원, 교수, 시민 등으로 구성된 조성위원 19명이 참석해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평등, 안전, 건강, 여성의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 환경조성의 5가지 지표를 목표로 삼고 35개부서가 참여하여 180억 원의 사업비로 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성위원회, 조성협의회, 서포터즈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

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40%이상 달성,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확대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기반 개선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의 정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익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